

기혼남성의 고부관계 인식 - 장남역할 남성을 중심으로 -*

The Married Man's Perception on the Mother and Daughter-in-laws Relationship
- Focused on Man Playing the Role of Eldest Son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 연구소
연구원 배선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경영·소비자학 전공
교수 김순옥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Life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Researcher: Bae, Sun Hee
Dept. of Family Life Management & Consumer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Kim, Soon Ok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결과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 참고문헌 |
| III. 자료분석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other and daughter-in-laws relationship perceived by married man playing the role of eldest son.

This study relied on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order to approach the most inside of the very complicate and delicate human relationship such as mother and daughter-in-laws one. The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by the depth interviews.

The finding was that married man perceived mother and daughter-in-laws relationship as a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women.

◆ 주요어: 고부관계, 기혼남성, 장남, 사례연구

* 본 논문은 1999년 성균관대학교 박사 후 연수과정 지원에 의해 연구된 것이다.

I. 문제제기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가족 관계로 묘사되고 있는 고부관계를 장남역할을 하고 있는 남성의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고부관계 연구에서 관계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남성은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가족연구에서 기혼 남성들의 가족경험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족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전제하에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 이르러 가족에서 기혼남성들이 직·간접으로 자녀와 다른 가족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기혼남성의 가족참여가 그들 삶의 다른 양상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가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홍성례, 2001). 우리 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주로 남성들의 '부모 역할'(허선자, 1992; 장미나, 1994; 이성희·한은주, 1998; 조선희, 1998; 서혜영, 1999), '배우자 역할'(최수선, 1995; 신소영, 1996; 조미환, 1996; 김양호, 1997; 조성은, 1998)에 관한 것이다.¹⁾ 핵가족을 전제로 가족 내 남성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부계직계가족을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핵가족이라 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확대가족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노부모 세대와의 경험은 가족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기혼남성

을 대상으로 확대가족 속의 남성의 경험을 연구한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남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고부관계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남성은 결혼과 동시에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어머니의 아들과 아내의 남편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그런데 남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은 갈등의 소지가 많은 법적 부모자녀관계인 고부관계에 있게 된다.²⁾ 고부관계에서 남성이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고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시어머니(이경애, 1981; 이순형, 1983; 장선주, 1989; 한희선, 1991)나 며느리(유가효, 1979; 박부진, 1981; 권정자, 1984; 이영환, 1986; 지장순, 1988; 박현옥, 1989; 최동희, 1990; 이정연, 1990), 시어머니와 며느리 양쪽(이정우, 1973; 고정자, 1975; 김광일·남정현, 1978; 황춘선, 1979; 김혜숙, 1984; 이기숙, 1986; 송경아, 1987; 고정자, 1988; 성인애, 1991)을 대상으로 이들의 고통이나 해결방안을 부각시키는 것에 치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³⁾ 이와 같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연구가 집중된 이유는 갈등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와, 또 하나는 연구대상을 구하기가 쉽다는 점 때문인 것 같다. 선행연구(권정자, 1984; 고정자·김갑숙, 1993; 송현애, 1993; 배선희, 1996)에서 고부관계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아들/남편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혼

1) 홍성례(2001) 연구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2) 우리나라는 부계가족제도의 문화를 갖고 있는 대표적 나라이다. 그러므로 가족관계 중 가장 중추적 관계는 부자관계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축이 되고 이 축을 통해 혈통과 권력이 보장되며 다음세대로 부계와 부권이 전수된다. 그러므로 가족 내 다른 관계(모자관계, 고부관계, 부녀관계 등)는 이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이 축을 공고히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결혼을 통해 남성가족의 일원으로 편입하여 들어가는 며느리는 가족의 위계서열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되며, 아들을 통해 권위와 권력을 얻게 된다. 즉, 어머니에게 아들은 생존의 기반이며 애정의 상대인 것이다. 이런 관계에 끼게 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경쟁 대상이 되고 시어머니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때 부계가족제도하에서의 고부관계에서의 갈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3) 고정자·김갑숙(1993)의 연구 참고하였음.

남성을 대상으로 고부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사료된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만을 대상으로 행해지던 고부관계 연구를 기혼남성으로 그 대상을 확대시켜 그 성격을 규명하려고 하는 본 연구는 고부관계 연구의 축적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남성들이 고부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전체 남성들의 시각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II.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1. 연구방법

심층면접을 통해 기혼남성이 고부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였다. 어머니와 아내사이에서 겪게 되는 아들/남편으로서의 미묘하고 복잡한 경험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 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접근 방법은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을 통해 조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상경험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저해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질적조사방법은 일반화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생생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통해 가족 삶의 생동감·역동성·다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동원·함인희, 1992).

질적 조사 방법은 행위자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일상생활에 관심을 두어 어떠한 사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Taylor & Bogdan, 1984; Gilgun, Daly & Handel, 1992). 또한 이 방법은 연구자가 진실이나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견해를 이해하고 이를 자

신의 이론적 시각에 비추어 해석하는 특성이 있다 (Taylor & Bogdan, 1984).

이러한 사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겪게되는 아들/남편의 경험이나 인식을 그들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질적조사방법이 적합함을 말해준다. 즉 심층면접을 통해서 수집한 생생한 이야기를 이용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고부관계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가 인터뷰에 앞서 설정한 테마는 다음과 같다. 기혼남성이 인식하는 1) 고부관계의 성격, 2) 고부갈등 원인, 3) 고부관계에서의 남성 역할, 4) 고부갈등 해결방법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부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하되 장남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머니와 아내가 생존해 있는 결혼 10년 이내 사람들로 제한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동거경험이 있으면서 고부갈등을 겪은 사람들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남성이 고부관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 10년 이내로 한정된 것은 결혼 후 10년 이상이 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어(성인애, 1991) 서로에 대해 무신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이다. 회상법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탐색하였다.

연구대상은 주변 사람을 통해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2000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에 이루어졌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소개를 받거나, 본인이 아는 사람 5명이다⁴⁾. 이들을 인터뷰한 이유는 응답자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었는데, 인터뷰 결과 본 연구자와의 관계가 응답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며, 오히려

4) 주변에서 자주 듣는 얘기지만 남성들은 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부모님과 동거 경험이 있고 갈등이 심한 사람들로써 자신들의 가족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남성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실제로 면접을 할 때도 안면이나 소개해준 사람과의 친분 때문에 허락은 했지만 이야기하기를 상당히 꺼려하였다. 다행히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준 그들에게 감사한다.

내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견되었다. 인터뷰는 질문의 개요를 적은 면접지침에 의거했다. 소요된 시간은 1~2시간이었으며, 인터뷰의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동의 아래 녹음하였다. 응답이 불충분한 경우 추후에 다시 만나거나 전화로 인터뷰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각 사례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Ⅲ. 자료분석 결과 및 해석

1. 기혼남성이 인식하는 고부관계의 특성: 여자들 간의 경쟁관계

본 연구에서 남성들은 고부관계를 여자와 여자간

의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들은 수직적 관계로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세대가 다르지만 남자를 사이에 둔 여자들간의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규정짓고 있었다(사례 1, 2, 3, 4).

“예를 들어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다정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와이프가 봤을 때 이게 동급으로 같아요. 같은 여자로 봐요. 그러니까 나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부모자식 관계인데, 와이프가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살다보면 어머니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 방을 뵈 수 있으면 안들어가요. 그런데 텔레비가 거기 있어요.

〈표 1〉 면접사례의 일반적 특성

사례	관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연수	비고
1	본인 아내 어머니 아버지	36 34 64 사망	대졸 대졸 중졸	교수 전업주부 전업주부	9년	현재 분거 자녀양육 때문에 두 번 동거(3년) 이때 동생 2와 같이 살았음 아내 6년간 취업, 자녀 3(9, 7, 2세)
2	본인 아내 어머니 아버지	39 35 69 사망	대졸 대졸 중졸 고졸	대학강사 대학강사 전업주부	5년	결혼 직후부터 동거 아버지 결혼후 2년 동안 투병 자녀 2(4, 2세)
3	본인 아내 어머니 아버지	35 36 63 사망	초대졸 초대졸 초졸	자영업 전업주부 전업주부	5년	결혼직후부터 동거 2년 예정으로 분거 1년째 아버지 2세때 사망, 어머니 혼자 양육 자녀 2(4, 3세)
4	본인 아내 어머니 아버지	33 31 57 60	대졸 고졸 중졸 고졸	회사원 전업주부 전업주부 상업	20개월	결혼직후에는 분거했지만 현재 동거 아내 결혼후 1년 정도 놀이방 운영 자녀 없음, 동거인 동생 1
5	본인 아내 어머니 아버지	35 35 51 61	대졸 대졸 초졸 초졸	대학교직원 공무원 전업주부 운전기사	6년	결혼 직후부터 분거 4년 전부터 동거 자녀 1(4세)

※ (사례 2)는 삼남이지만 당사자 자신이 장남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시켰다.

(사례 5)는 갈등은 있었지만 다른 사례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뉴스라도 보고 그럴려면 집사람이 먼저 자기 방에 가서 자는 경우가 있지. 그럼 같이 가야 돼요. 만약 좀 있다 들어가게 되면 집사람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뭐랄까 고부간의 갈등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내가 생각할 때 여자들은 절대 수직적인 관계가 없어요. 남이지. 남편하고 관계서만 부모지. 그러니까 남자는 수직적인 상하질서가 분명하고 자기가 관계에 들어서면 딱 그 관계를 인정하는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더라고... 시어머니 측에서도 기본적인 갈등관계 인정을 안해요. 며느리도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보완관계가 아니라 경쟁관계예요.” (사례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양쪽이 관련되는 영역, 예를 들면 요리 등에서 갈등이 첨예화되는데, 시어머니는 그 동안의 경험으로 며느리보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며느리를 교육시키려 하는 반면,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경험은 별로 없지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항변하게 되어 고부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는 보완관계가 아니라 경쟁관계예요. 음식을 하더라도 나도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20년 먹어왔으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익숙하니까 와이프는 이제 음식에 관한 한 초보운전이란 말이예요, 초보운전이 해주는 음식이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보다 덜 맛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만 덜 먹어도 이게 왜 이러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객관적으로 경쟁력이 우위인데 내 음식을 안먹냐 그러니까 아주 묘하게 3년이 지나니까 주방에 솔뚜껑 운전의 권한을 와이프가 장악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딱 물러서서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하다가 빈틈만 보이면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례 2)

“...어머님이 왜 그러냐 하면 아버님이 두 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동안 거의 30년이 넘는 시간을 혼자서 살림하고 다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와서 살림할 때 그야말로 김치하나 담글 때 진짜 뭐 하나 사는 것까지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거 자꾸 간섭을 하시는거죠.

못마땅해서 간섭을 하시는 거죠. 이런 거 하나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요. 어머니는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게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게 트집이 될 수 있어요.” (사례 3)

“고부관계 그러면 순간 떠오르는 건 여자 대 여자라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여자가 경험이 적은 여자, 또 다른 말로 하면 경험이 많은 선배, 갓 들어온 신입생, 군대로 얘기하면 병장과 이등병 그게 고부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속성은 딱 하나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부모입장에서는 잘못된 거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려쳐야 한다는 게 부모의 생각이고, 그런데 새내기 입장에서 나도 할 줄 알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내 나름대로의 생활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라는 게 요즘 여자들의, 제 와이프도 대표적으로 그래요.” (사례 4)

그 밖에도 손자녀 양육, 상품구매, 외출 등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대등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더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것처럼 보인다. 모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싫어하지만, 관계의 성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시어머니의 성격이나 성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사례 1, 2, 3, 5).

“요즘도 며느리 혼수 그런 거 가지고 며느리 구박하고 그런 시어머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시어머니 타입인 것 같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기피하는 건 모든 여자들이 다 공통적이에요. 열 명중에 한 명 빼고 웃어른들한테 아주 착하고 효행정신이 그런 사람 빼고는 일단 시어머니를 다 불편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갈등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유형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잘 해주는 시어머니도 싫어하죠. 그게 기본 바탕인 것 같아요.” (사례 1)

“내가볼 때 며느리들이 생활의 편의추구에서 부딪히는 갈등이지 인간적인 면에서는 시어머니가 위예요.” (사례 2)

“나도 그런 갈등관계에 대해 얘기 들으면 아 일단 어머니만 자세를 다르게 하면 거의 갈등이 오지 않을텐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잘해야 되겠지만 시어머니가 자세를 좀 더 유연하게 가지면 많은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볼 때는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잘 하는 것 보다 우리 어머니가 스스로없이 그러시니까 별 문제가 발생안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 성격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도 그런 분이었는데 며느리 맞아서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사례 5)

아마도 남성들의 이러한 생각은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나 혈연의식 때문에 그러한 것 같다. 반면 며느리는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는데, 다음의 진술은 기혼남성의 며느리에 대한 생각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자기가 누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기쁨은 사실은 아주 큰 거인데. 며느리는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기쁨을 못가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걸 싸가지가 없다고 표현하는데. 난 세상여자들 중에 안 그런 여자를 못만났어요. 난 그런 여자를 드라마에서밖에 못본 것 같아요. 정말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됐잖아요.” (사례 1)

요약하면 본 연구의 대상자인 남성들은 고부관계를 시어머니가 우위에 선 여자와 여자간의 경쟁관계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부관계에 대한 남성들의 이러한 시각은 이 관계에 있는 여성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피상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 기혼남성이 인식하는 고부갈등 원인

고부갈등의 원인으로 남성들은 일상생활에서 며느리가 겪는 불편함, 고부 상호간의 이해부족, 대화부족, TV드라마의 종속적인 고부관계 묘사 등을 지적

하였다.

1) 일상생활에서 며느리가 겪는 불편함

연구 대상자들 모두가 고부갈등의 원인으로 일상생활에서 며느리가 겪게되는 불편함을 가장 먼저 언급하였다. 특히 같은 공간에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집안에서 편한 옷차림을 할 수 없는 것을 참지 못해 불만이 생겨 관계가 좋지 않게 된다고 얘기했다(사례 1, 2, 3, 4, 5).

“집안에서 있다보면 서로 빨가벗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이게 항상 옷을 입어야 되고, 이게 또 밤늦게 들어오면은 남편 눈치보다 시어머니 눈치가 더 보이고 늦잠 자도 남편이라면 같이 늦잠 자도 되는데 시어머니가 매일 6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는데...꼬꼬꼬꼬하고 돌아다니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례 1)

“공간을 쓰면서 발생하는 본능적인 뭐 그런 것...” (사례 2)

그런데 이들은 취업한 며느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느끼고 있는 자녀양육이나 가사 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사례 1).

“항상 피곤해 해요. 노는 날도 피곤하고 애키워준 것은 고마운데 불편한 거는 불편하다 여자들은 다 그래요. 시어머니는 애 키워준 공이 있잖아요. 지금은 애키워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도 어머니가 다 해줬어요. 반찬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이런 것 다했어요. 근데 그 공을 가지고 불편함을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것이고 불편한 것은 불편한 건가 봐요. 내 입장에서는 그거 다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여자들은 괜히 쓸데없는데 불편해하고 여자들 보면...” (사례 1)

남성들은 시대에서의 며느리 입장이나 동거하면서 시어머니가 연계 되는 정서적인 안정은 별로 고려하

지 않은 채, 며느리를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은 생각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겪는 불편함만 부각시키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시각은 혈연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고생스럽게 키워준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인지 아내보다 어머니에게 감정적으로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 고부 상호간의 이해부족

기혼남성들은 고부관계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어머니 또한 과거 젊었을 때 시집살이 한 것을 생각하여 며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아들을 보살피 주듯 며느리도 보살피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른을 대했을 때 그걸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른을 생각했을 때 나이 드신 분이 넓은 아량으로 밑에 사람 이해한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나이 어린 사람도 그 정도 도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해해야 해요. 너무 급하게 내가 못맞춘다는 것에 대해 나는 못해 어머니는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여유를 갖고 자기가 못해도 그 마음을 표시를 해줬으면 ‘어머니 제가 못해도 노력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불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은 좀 무뎡거든요. 집사람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이해를 해라 참고 어차피 부모가 한 백년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나이가 서른이 넘었지만 어머니도 60세가 넘으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시냐 이해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례 3)

그리고 그 이유를 상대방을 가족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도 이해할 수 있고,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를 친정 부모같이 생각하면 못마땅한 행동도 수용할 수 있어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근데 보면은 서로 이해하는 거 이해를 못하면은

진짜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머니가 나를 보살펴준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보살펴주는 편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저를 보살펴주듯이 며느리도 보살피 주야하고 며느리도 나이드셨으니까 어머니를 보살피드려야 된다고. 마음은 보면은 그런 거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되고...말은 안하지만 내 부모라 생각 안하니까 서로 그게 안맞는 거예요. 진짜 큰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해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어머니한테 이런게 있어도 이래서 그랬구나 이해를 하는...” (사례 3)

실제로 <사례 5>의 경우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데, 이 사례의 경우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일단 어머님이 좀 개방적인 자세로 딸같이 대해 주니까...늦게 일어나도 별로. 딸은 그래도 되는데 며느리는 그러면 안된다라고 그렇게 구분은 않지어 시더라고요. 며느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지어나 그렇게 강요는 안해요. 속으로 우리 어머니는 참으셔서 저러시는 건지 스스로 의심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로 편히 있어요.”(사례 5)

이와는 다르게 배선희(1996)의 연구에서 나타난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같이 대하여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었다는 며느리의 의견은, 고부관계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3) 대화부족

‘대화부족’도 갈등을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서로 얘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추측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만들어져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사례1, 2, 3, 4, 5).

“왜 얘기를 안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머니가 어른이니까 얘기를 못하거든요.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이거 좀 해줬음 좋겠어’라고 애

기를 못한다 이거예요. 얘기를 서로 잘 안하죠. 집에 들어가면 저한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럼 저는 들어오면 두 사람이 얘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건데 얘기를 안하고 그걸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조금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지금 풀면은 문제가 금방 해결되잖아요. 그후에 풀어지는데, 이 거를 진짜 아침에 있었던 거를 저녁까지 그 감정을 갖고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동안 수만 가지를 상상할거야 제가 어머니가,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말안하고 있다가 저한테 얘기해요.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그 어떤 결론까지 내려가지고 얘기를 하나 해결책이 싸우는 것밖에 없죠. 서로 얘기를 안하죠. 집사람도 어머니한테 얘기를 안하고 어머니도.. 느낌이 오죠. 말안하고 얼굴에 찌푸리고 말안하고 하루종일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사례 3)

"저희 어머니도 그게 사실 좋은 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얘기를 안하고 있었어요. 와이프는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자존심처럼 그런 거에 자존심이 상해요. 왜냐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데다가 또 그것까지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데다가 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 와이프하고 얘기를 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더 기분이 상하는 거죠." (사례 4)

특히 <사례 3>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욕구를 이야기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말을 하죠. 저는 말을 막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하고 집사람하고는 그게 안되는 거예요. 말을 안해요. 결혼한 지 얼마 안되고 서로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했겠죠. 서로가. 어차피 싸운다 이거예요. 말을 안하고 있어도 나중에 싸우게 된다 말이에요. 저를 통해서. 저는 막 짜증이 나죠. 말을 해라. 나중에 싸워도 말을 해라 어차피 싸우게 되니까 말을 해서 풀어라 당사자들끼리 얘기를 해서 풀어라 지금도 그래요." (사례 3)

이런 사실을 통해 볼 때 한국가족에서의 갈등원인이 대화부재에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부간에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입장이나 바람을 얘기해도 상대방에게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남성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왜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4) TV드라마의 종속적인 고부관계 묘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바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들었는데, 이러한 기대에 TV 드라마의 고부관계 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사례 2). TV에서의 종속적인 며느리 묘사로 인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기대수준을 높여 그렇지 않은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크게 하며, 며느리 입장에서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며느리상을 TV에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그들은 말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건은 없었고 내가 볼 때 약간의 디자이너(desire)예요. 왜 저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있는가 좀 더 좋은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가 항상 비교대상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시어머니는 돈도 많고 권위도 있고 그런 집안에서 며느리를 부리는 입장에서 시어머니관을 보다가 현실은 이거 완전히 막가네 같이 놀자는 식으로 가니까 어머니는 그 관계가 컸어요. 드라마상의 비현실성 때문에... 드라마는 갈등이 클라이막스이고 설정상황이 회장집 시어머니, 하꼬방 출신의 며느리 이런 극단적인 결합인 거예요. 시가에 절대적인 노예가 되라는 거지 드라마는."(사례 2)

요약하면 기혼남성들이 생각하는 고부갈등 요인은 일상생활에서 며느리가 겪는 불편함, 고부 상호간의 이해부족, 대화부족, TV드라마의 종속적인 고부관계 묘사 등으로 정리 할 수 있다. 그들이 지적하는 갈등요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3. 기혼남성의 고부관계에서의 역할

1) 고부갈등이 있을 때 남성의 느낌

고부갈등이 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질문하였더니 연구 대상자들 모두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해맸다든지, 집에서 뛰쳐나오고 싶었다든지, 아니면 숨막혀 죽을 뻔했다고 그들의 감정을 피력하였다. 특히 (사례 3)의 경우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 밖에서 생활하기도 힘든데, 여자들이 남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 싸워 본인을 힘들게 했다고 어머니와 아내를 비난하였다. 이들의 반응으로 보면 남성 또한 고부관계의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큰 소리로 치고 싸울 때 서로 막 내가 나가냐 나가 나가냐 그때 편들 수가 없었지요. 너무나 험악하니까, 그래서 OO하고 붙들고 막 울었어요.” (사례 2)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죠... 어머니와 아내가 싸우면 그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내가 어디 지방에라도 가서 살고 어머니하고 집사람하고 집에서 나중에 남편이 고생을 하든지 뭘하든지 그런 거 바라보면서 니하고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행복에 겨워서 이러는 게 아닐까... 진짜 나가면은 온갖 수모 다 당하면서 다니는데 집이라고 들어가면은 안싸워도 될 것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요.” (사례 3)

“두 사람이 안좋은 상황에서 집에 가면 기분이 안 좋죠. 숨막히죠. 예를 들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와이프하고 어머니하고 서로 인상이 안좋다 그러면은 눈치를 봐서 그러면은 저는 그렇든 안그렇든 집에 가면 가능한 한 밥먹고 씻고 제 방에 들어와요.” (사례 4)

남성이 처해있는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길러준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이가 나쁘다는 사

실은 참기 힘든 일이다. 남성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두 사람만 있을 때는 갈등을 표출하지 않다가, 자신들의 싸움을 판정해줄 사람이 있을 때 표출한다는 사실이다(사례1, 2, 3, 4). 특히 시어머니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며느리에게 섭섭하거나 속상했던 일들을 속속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 해줘 알았어요. 내가 항상 밖에 갔다오면 어머니가 저쪽 방에서 혼자 울고 있어 그럼 짐싸고 있어요. 내가 딱 들어가면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저 돌아버리지요.” (사례 1)

“싸우다 보면 다 있는데서 싸우죠. 나 없는 데서는 안싸우죠. 여자들 이상하지. 자기가 옳다는 판정판을... 싸우는 과정에서 누군가 제삼자가 그것을 보고 그러고 그걸 해야 되는가?. 둘이만 있을 때는 절대 싸움이 안나요.”(사례 2)

갈등표출을 아들/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지지자를 확보하여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본인 자신이 양육했기 때문에 가까운 존재라고 느낄 수 있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편을 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당사자들끼리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가족 내 다른 관계와는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다. 남편/아들이 고부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다.

2) 고부갈등에서의 남성의 역할

결혼초기에 고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남성들은 우선 아내에게 ‘고맙다’, ‘힘들겠다’ 등의 말로서 아내를 지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 방법은 본 연구의 대상자 모두에게서 나타났다(사례 1, 2, 3, 4, 5).

“마누라한테 고맙다 표현했어요. 내가 벽창호인가요. 다 해 봤지요.. 그게 제 1전략인데 안했겠어요. 너 나름대로 힘든 거 안다 그런거 처음 단계에다 써봤어요. 처음 단계에는 그런 거 다 써먹는 거 아니에요?” (사례 1)

“힘들겠다 그런 얘기를 안하면 부부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처방이 안돼요. 지지는 하죠. 지지가 저는 집사람한테.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라...” (사례 3)

고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아내를 지지해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이들은 결론짓고 있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시어머니는 없는 것이 낱다라고 생각하는 며느리들한테는 그런 이해를 시키고 격려를 해주는 것은 다 소용이 없어요’ 라는 (사례 1)의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성들은 어머니보다 아내들을 설득시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시도는 아내를 어머니보다 더 걱정하고 염려해서가 아니라 일단 이해와 양보를 며느리가 먼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례 5)의 경우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아내를 잘 위안해주고 동지임을 느끼게 해주면 문제는 훨씬 쉬워진다고 말한다. 사례(1, 2)도 말로는 아내에게 위안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지만 이들의 평소 기본적인 생각이 (사례 1)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내는 이기적이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사례 3)은 (사례 1)과 사정이 조금 다르지만 어머니의 살아오신 여정과 아내가 어른을 이해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심있는 위로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친구들은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간에 끼어 들어 누구 편을 든다기 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아내한테 좀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아내만이라도 위안을 해줬으면 아내가 풀어질 텐데 그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내가 바라는 게 그상황에서 엄마 편을 들어서 자기 남편이

부모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해줄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오히려 아내가 잘 알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일이 더 커져서 자기 처신이 더 힘들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차라리 아내를 잘 위안해주고 남편이 동지구나를 느끼게 해주면 될텐데 그거를 안해주니까 더 열받더라고요. 엄마 모르게 위안을 해주고.” (사례 5)

결국 아내에게 하는 지지의 말 자체가 얼마나 진심인가 아닌가하는 문제가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

한편 갈등상황에 끼게 되면 중재역할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남성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잘한 사람 편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사례 1, 2, 3, 4).

“난 사안을 봐서 이걸 며느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어머니를 편들고 어머니가 잘못했다 그러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고 말아요. 아주 경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는 없어요.” (사례 1)

“두 사람 놓고 그 앞에서 다 해버리는 성격이라서 그래 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딱 보고 어머니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어요 그래요. 속상해도 얘기를 하죠 하는데 그런 것 제 성격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의지하고 자식이 와서 뭐 해줄기를 바랄 때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사례 3)

중재를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여 난감한 기분을 느꼈다고 이들은 보고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하지만 한쪽을 편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당사자들간의 관계를 더 악화시켰으며, 그 이유를 대화기술의 부족으로 설명하였다(사례 1).

“말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하느냐의 문젠데 내가 한 이야기가 이쪽에서는 저쪽을 편든 것 같고 이쪽에다가 하니 이야기는 또 저쪽을 편드는 것 같

이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확률이 더 높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중재가 실패하는 이유가 두 사람 눈에 어느 한쪽을 편들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둘 다 감정을 악화시키지요.” (사례 1)

“어머니와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3년이에요. 뭐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집에 있다보니 같이 나가서 이런 저런 얘기하고 식사 하면서 풀어주고 그러는데 집에 들어가면 그게 말짱 팡이라니까요.” (사례 3)

남성들의 중재는 그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여준 그들의 표현대로 어찌 보면 객관적이라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어머니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어머니에 대해 애정이 절절할 수밖에 없어요. 마누라는 남이고 어머니는 자기 낳아준 사람인데 당연하지 않아요. 사랑하지만 그거는 타인과 타인이 만난 관계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랑하면 이혼도 못하겠네요.” (사례 1)

“어머니하고 집사람하고 뭐 그랬다 그러면 마음이 어머니한테 간다 이거예요. 왜 그거는 모르겠어요 나중엔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까 돌아가실 때 내 부모니까 내가 그 아무리 말도 안되는 것 가지고 화를 내도 내 부모니까 집사람 내 부모한테 왜 이러냐 그래 얘기했을 때 이해를 해라 그래 얘기하는데 내 부모가 아니니까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사례 3)

이는 어머니의 삶 자체에 대한 연민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례 1)의 표현대로 아내는 타인과 타인의 만남이지만 어머니는 자기를 있게 한 혈연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사례 3)의 경우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애정이 간다는 말은 그들의 객관적인 중재 역할을 기대

하는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고부사이에서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 같다.

“저는 중재하려고 안해요. 저는 저의 어머니하고 와이프 사이에서 나서서 여태까지 한번도 중재하려고 한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는 잘 몰라요.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잘몰라요. 그냥 제가 여태까지 경험으로 고부간의 갈등을 보아 온거나 며느리하고 그런 거를 TV를 통해서 보아온거나 나름대로 봐왔을 때 제가 나는 결론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식구, 특히 저한테 좋은 방법이겠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 가능하면 어느 편도 안들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 왜냐면 제가 그걸 중재하다 보면 저 나름대로 쏠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테고, 또 아니면 말 한마디라도 했는데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테고 제가 왜그러냐면 서로 대화가 잘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는 아니지만 못하다는게 제 지론이에요. 세 사람이 한번 얘기는 했죠. 제가 중재를 하려고 해서라기 보다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다가도 결국엔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말을 잘못 꺼냈더라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얘기를 잘 못알아들었다라 그 한 문제로 또 엄청나게 싸우고 끝났어요.” (사례 4)

고부관계에서 아들/남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고부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가정법원의 판결들이 이를 뒷받침한다(홍은희·신예리·신용호, 1997). 결국 중재를 하긴 하지만 객관적인 중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내를 지지하거나 중재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관계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며느리가 시부모 부양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였고 설사 불만이 많았다 하더라도 외부로 표출

하지도 않았으며 그것이 가족의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남편이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상당한 태도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화에 따른 압력 전통의 약화와 개인주의, 평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서구가치의 도입, 그리고 여성들의 권력신장으로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고부갈등은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이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중요성을 가중시켜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4. 기혼남성이 생각하는 고부갈등해결 방안

본 연구 대상자들은 고부갈등은 관계의 특성상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단지 이들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시간의 흐름, 분거, 며느리에 대한 낮은 기대, 손자녀의 존재, 고부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 며느리의 이기적 속성 포기 등을 들었다. 이 요인들은 결혼한 이후 그들의 경험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1) 시간의 흐름

본 연구의 사례 모두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고부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말했다(사례 1, 2, 3, 4, 5). 아주 심각한 갈등을 호소한 사례도 시간이 지나고 난후 예전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엄청 정리가 됐죠. 시간이 가니까 갈등관계가 해소되죠. 정이 쌓여서.” (사례 2)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게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진짜 사람이 1-20년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마음이 어느 정도 이심전심으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기간을 그래도 참고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 힘들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못 참고.”(사례 3)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온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이 다 대부분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정답일 때도 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닐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거를 제 나름대로 조절할 뿐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사례 4)

(사례 4)의 얘기로 볼 때 많은 기혼남성들은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적응이 되었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 포기가 되기 때문이다. 고부갈등으로 인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고부관계가 긍정적으로 되었다는 성인애(1991)의 연구결과는 이를 지지해 준다. 또 하나는 고부갈등이 있을 때 남성 본인의 중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2) 분거

조사대상자중 (사례 1, 3, 4, 5)는 결혼 후 분거와 동거를 경험한 사례들이다. 부모와 같이 살 때보다 분거했을 때 갈등의 양이 훨씬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떨어져 살아서 문제가 좋아졌어요. 가깝게 있으면 마찰이 높아져요. 같은 주거공간에 살지 말고 떨어져서 그냥 왕래를 자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한번 싸우고 어머니 내려가시고 한참 없어도 잘못했다 그러면 전화도 하고 뭐도 가져오고 반찬도 보내고, 또 좋아져요. 같이 있으면 또 안좋아져요. 요사이는 한 4, 5년을 계속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나빠질 일이 없었어요. 첫 애 낳고 2년 조금 안되게 살고, 둘째 애 낳고 1년 좀 안되게 살고 그때 많이 심각했어요. 이혼도 그때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사례 1)

“아무래도 늘 싸우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시간이 지난 것도 있고 서로 잘 안보니까 그 시간에 집사람은 그런 마음이지요. 보고 집에 오면 되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없어져야겠지만 아직까지도 따라 다니고 있죠. 어머니한테 그런 스트레스 안받아도 되고요.” (사례 3)

“같이 살기 전에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주말마다 같이 교회를 같이 갔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만났고 김치 떨어지면 어머니가 김치해 왔다고 가져가라 그러면 갔고 아니면 어머니가 가져다 주셨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오히려 떨어져있었기 때문에 서로 신경을 안써야 되는 부분을 많이 썼죠. 경제적인 부분을 뺀다면 서로간에 그런 게 없었죠.” (사례 4)

한편 (사례 3)의 경우, 분거 후 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었으며 혼자 살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걱정하는 마음이 앞선다고 말하면서 분거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짜 편한 걸로 따지자면 참 많이 편해요. 어머니 하고 부딪히는 거 그런 거 안보고 편한데 마음이 어머니는 혼자 계신데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어머니는 그리 건강한 편은 아니세요. 당뇨 있으신데. 분가는 수단인데 그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제 마음이 이제 저는 어머니도 사랑하고 저희 집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 이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러고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그러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나갈 수 없고 집사람을 생각하면 나가줘야 되고 그 진짜 힘든 거예요.” (사례 3)

‘분거’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고부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실제로 선행연구(박부진, 1981; 고정자, 1989; 배선희, 1996)에서도 고부갈등이 심한 경우에 ‘분거’가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며느리에 대한 낮은 기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도 고부갈등을 해소하는데 하나의 방안으로 나타났다.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자기 아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아들=며느리로 기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며느리들도 그걸 기피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사례 1)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건은 없었고 내가 볼 때 약간의 디자이너(desire)예요. 왜 저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있는가 좀 더 좋은 며느리가...” (사례 2)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역할, 특히 며느리 역할에 대한 기대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기대 자체가 갈등을 야기하는 동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도 고부갈등을 해소하는데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 손자녀의 존재

손자녀의 존재도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사례 2, 3).

“두 사람이 싸우면 나도 완전히 폭발하는거지 이게 도대체 말이야... 두 사람 다 모아놓고. 두 사람 다 잘못이 있는데 왜 남자를 기죽이나? 이렇게 싸우면 내가 뭐가 되나 가족은 화목이고 이런 얘기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손자손녀가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왜 그래요 하는 모습에 노인네들이 녹고 해소가 되고...이 자식이 없으면 그런 해소 매개책이 없어가지고서...손자 없을 때는 매우 심했어요.” (사례 2)

5) 고부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

(사례 5)의 경우 고부관계를 갈등이라 규정짓는 것이 갈등을 더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데, 왜 고부관계만 갈등관계로 규정짓는 지 알 수 없다고 반문하면서 인식의 전환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굳이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규정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갈등은 아들간의 관계에서도 트러블이 생겨서 서로 얼굴을 안보는 경우도 있고 딸하고도 대판 싸워서 저희 같은 경우도 아버지랑 여동생이 대판 싸워서 그런 일이 인생사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싸우고 나가니 마니 하는 건데. 며느리랑 완전히 남남이다가 같이 살게 됐는데 부모자식간에도 싸우는 데 며느리랑 편하게 지낼 이유가 없는 거죠. 분명 이 트러블은 생기는 건데. 굳이 남남이고 고부간이라고 규정짓는다고 보다는 내가 이렇게 싸우는 것도 부모 자식간에도 분명히 싸우는 문제 아니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부간이라고 규정지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딸같이라고 하는 것, 며느리가 벌렁 누워 텔레비 봐도 며느리 자세가 저게 뭐야 지적하기보다는 평소에 딸이 그렇잖아요. 못본척 하고 그냥 넘겨두고 물론 그게 크게 예의범절에 진짜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까지 가면 힘들겠지만 크게 서로 예의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있어도 넘어간다 이거죠.” (사례 5)

남성들이 생각하는 고부갈등의 해결방안은 시간의 흐름, 분거, 며느리에 대한 낮은 기대, 손자녀의 존재, 고부관계에 대한 인식전환 등이다.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의 시각에서 고부관계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남성들은 고부관계를 여자들간의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갈등의 원인으로서는 일상생활에서 며느리가 겪는 불편함, 고부 상호간의 이해부족, 대화부족, TV드라마의 종속적인 고부관계 묘사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갈등이 있을 때는 참기 어려웠으며,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 결국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고 한다. 해결방안으로는 시간의 흐름, 분거, 며느리에 대한 낮은 기대, 손자녀의 존재, 고부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을 들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다.

1) 기혼남성들은 고부관계를 한 남성을 사이에 둔 여자들간의 경쟁관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계가족제도의 속성상 고부관계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면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아주 피상적으로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사고는 가부장제 사회인 우리나라 남성들의 여성들에 대한 시각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고부관계는 한 남성을 매개로 맺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관계는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결혼하기 전에 아무런 상호작용도 없었던 사람들이 결혼제도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기대한다.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과거부터 시어머니에게는 의무보다는 권리를 기대하는 반면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를 비롯하여 시가 식구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행동하기를 기대하는데,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의무만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며느리는 의무를 덜 하려 하고, 시어머니의 권위는 며느리의 우위에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족스런 면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의 관심은 남편뿐이고,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지지자일 수밖에 없다. 남성들이 고부관계를 상대방을 이해 못하는 여성들의 경쟁관계로 인식하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고부관계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특성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여 그런 것 같다.

2) 본 연구의 대상자인 기혼남성들은 고부갈등이 생겼을 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였다. 이 관계에 끼인 남성이 과연 객관적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남성은 시어머니에게는 혈연과 애정의 대상이고, 며느리에게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애정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 보면 ‘어머니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마누라는 새로 얻으면 돼요’ 라는 연구대상자의 단적인 말에서처럼 어머니에게 혈연, 자신을 키워준 것에 대한 고마움, 또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한 연민 등으로 심정적으로 더 가까울 수 있다. 배선희(1996)의 연구에서도 며느리들은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의 이와 같

은 시어머니에게 치우친 행동을 지적하였다. 남성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처한 그들의 입장 때문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내용에 맞게 객관적으로 처리한다고 말하지만 어머니와의 오래된 삶의 공유는 이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있다.

3) 본 연구 대상자들은 고부관계에서 방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는 고부관계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그 동안의 경험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에게 치우친 감정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없어서인 것 같다. 고부갈등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뿐만 아니라 기혼 남성, 그 외 가족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올바른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기혼남성도 고부갈등의 중요한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고부관계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가지고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주장하는 남성에게 가족이 안식처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들도 가부장제 사회의 희생자라고 해야 하는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야겠지만 이들의 방관자적인 행동으로 보아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기혼남성들은 고부관계에 대해 피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고부관계를 바라보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심각한 고부갈등이 있는 가족의 남성들에게는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사례수가 적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부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혼남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경험과 인식을 탐색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접수일 : 2001년 9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10월 16일

【참 고 문 헌】

고정자(1988). 한국도시주부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정자·김갑숙(1993). 고부관계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235-247.
권정자(1984). 취업여부에 따른 고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경동·이은숙(1992). 사회조사 연구방법론-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서울: 박영사.
김은희(1994). 문화적 관념체로서의 가족. 한국문화인류학 24, 183-214.
김현주(1999). 한국 가족변화의 중심장소로서의 장남부부: 전통과 거부 그리고 재해석. 가족관계학회 월례회 자료집.
박재홍(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대한 연구: 질적접근. 한국사회학, 257-296.
배선희(1996). 만며느리의 고부관계 인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인애(1991). 한국의 고부갈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현애(1993).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기숙(1985). 한국가정의 고부갈등 발생원인에 대한 요인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동원·함인희(1992). 도시중산층 가족. 가족학 논집 (4).
홍성례(2001). 기혼남성의 가족·직업 역할 중요도 인식과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은희·신예리·신용호(1997).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더 모르는 가족이야기. 서울: 황금가지.
Duvall, E. M.(1954). *In-laws: Pro and Con*. Newyork: Association Press.
Elliot, F. R.(1986). *The Family: Change or Continuity?*. Houndsmills, Hampshire: Macmillan Edu-

- ation Ltd.(안병철·서동인 옮김. 1992. 가족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 Gilgun, J. F., Daly, K. & Handel, G.(eds.). (1992). *Qualitative Methods in Family*. Newberry Park,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Moratz-Baden, R & Cowen, D.(1987). "Mothers in law and Daughter in Law(The effect of proximity on conflict and stress)." *Family relation*, vol.36, No.4.
- Morgan, D. H. J.(1985). *The Family, Politics and social theory*. Boston: Routledge and Kegan Paul Plc.
- Taylor, S. J. & Bogdan, R.(1984).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Newyork: A Wiley-interscience Pub.
- Schlien, J.(1965). "Structure-Function, Kinship Terminology, and the Mother-in-law."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Symposium of the Committee on Human Development.